

## 에필로그: 세계 읽기의 결핍과 과학의 사회적 가치

저는 대학의 글쓰기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과 같이 읽을 만한 책들의 목록을 미리 마련해두기 위해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교양서들을 종종 훑어봅니다. 서가를 돌아다니며 최근 발견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몇 년 사이 서점에 기후위기 관련 서적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주제와 관련해서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보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사회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 속에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번역 출간된 마이클 셸렌버거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 또 새로운 문제를 마주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이 책의 존재를 맨 처음 알게 된 것은 학생의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저와 학생들은 나빠진 대기질이나 몇몇 하천의 '녹조라테', 북극곰 서식지의 위기 등으로 이해되어 온 '환경오염'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훨씬 더 거시적인 문제로 재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 기후재난을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기후위기'라는 수준의 거대한 문제는 일상적인 시야에 용이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들-탄소배출, 삼림파괴,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오염, 공장식 축산, 기아, 환경난민, 글로벌 식량 생산 및 분배 구조 등-을 알게 되는 과정은 압도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기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커지는 중입니다.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을 삶의 진지한 자세로 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극단적인 관점'으로 여기게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환경론자들의 태도를 일종의 종말론적 과잉반응으로 보고 기후위기 논의 이면을 알려주겠다는 셸렌버거의 책은 반가운 관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는 탄소 흡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삼림파괴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패스트 패션 산업 같은 환경파괴적 글로벌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진단들이 과잉되거나 오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책에는 아마존 삼림 훼손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거나 플라스틱보다 종이나 유리가 생산비용이 더 높아 환경에 더 해롭다는 지적이 제시되면서 궁극적으로 환경을 위해 산업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원전 개발의 필요성이 역설됩니다. 무엇보다 환경과 발전 지향이 결국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셸렌버거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의 다양한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보이는 긴급한 경고를 호들갑 떠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의 주장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입니다. 물론 과연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나 상품이 그 생산과 소비 구조 안에서 정말 그러한지, 환경을 위한다는 정책이 부유하고 가난한 지역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수치화되어 신뢰를 얻고 있는 정보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 등의 문제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객관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에 힘이 실을 수 있을 만큼 저자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 논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셸렌버거식의 '영리한' 반론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쉽습니다.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담론들에 대해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는 정신은 꼭 필요한 지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인 논쟁의 영역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스처' 자체가 더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셸렌버거의 경우에는 마치 저 '제스처'가 더 객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론자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팩트’는 이렇다”는 논법이 사실상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충실한 논증을 앞서는 것이겠지요. 또한 이러한 논법을 만들기 위해 극단주의적 환경론자들을 환경론자들 일반으로 상징하는 전제를 깔기도 쉽습니다. 저의 몇몇 학생들 역시 이 책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아무런 문제없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삼키기 적당한 지적 담론을 흡수해오곤 합니다.

이 책과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은 저에게 계속 고민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사유와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라고 말해왔습니다. 식민지배, 분단체제, 전쟁경험, 압축성장, 정치적 독재 등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분명 한국 사회는 이러한 억압적 역사를 일정 수준 벗어났지만 다른 세계를, 다양한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신장되었는지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읽고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세계를 ‘읽는’ 능력의 결핍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은 힘겨운 경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배경처럼 펼쳐져 있는 수수께끼 같이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쟁 사다리 올라가기 원리와 동일한 작동방식의 성장 제일주의와 능력주의 정도가 삶의 지배적 원리로서 공유되어 있을 뿐이죠. 이러한 가운데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읽기가 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의 의제에 대해 그 ‘이면’을 가르쳐 주겠다는 제스처들이 지적 자극으로서 소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담론적 풍경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월든팀이 환경 문제에 과학적으로 개입해 만들어내고 있는 실천은 저에게 매우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지식계가 마치 공소한 말잔치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냉소주의가 잠식하는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실천적 활동을 현실화하는 프로젝트를 만나는 것은 인문학과 인에게 흔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재의 프롤로그적인 글에서 「K박사의 연구」라는 김동인의 소설을 소개하면서 과학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 사이에서 대중적인 설득을 해나가는 담론의 역할이라는 의제를 던져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김동인의 시대와는 다르게 더욱 혁신적인 과학기술일수록 더욱 대중적인 설득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주여행, 인공지능, 로봇기술은 대중들의 열광과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쓰레기와 오물, 똥과 같은 현대 사회 모순의 부산물들을 고민하는 과학의 현실적 실천은 너무 이상적이거나 나이브한 개입이 아닌가 하는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깊이 읽기’ 같은 인문학적 훈련이 과학기술의 더 유의미한 사회적 활용을 상상해내고 그 가치의 설득력을 더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이 역시 이상적이고 나이브하다고 여기기 쉽겠지만 이러한 현실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한 사회가 가치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의 중층성을 사고하지 않는 편리한 습관의 산물일 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열편의 글을 쓰는 동안 저에게는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란 이러한 구체적 진단과 함께 정리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이언스 월든팀의 건투를 빕니다.